

소통하는 '젊은 동문회'를 만들고 싶다는 제31대 전영덕 총동문회장을 만나 총동문회의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학교의 경직된 규정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 위원의 권리를 점검해봤다.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대학주보



금연구역
흡연문제 지속

생활과학대학 앞에 위치한 금연구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청운관으로 향하는 좁은 통로에서도 흡연이 이어져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금연구역 흡연 문제는 이번 학기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김백봉 명예교수 별세

양세빈 기자 abok29@khu.ac.kr

김백봉 무용학부 명예교수가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노환으로 지난 4월 11일 영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부채춤', '화관무'의 창시자로 600여 편의 창작 춤을 선보이며 한국무용의 부흥을 이끌었다. 평양에서 태어나 최승희 무용연구소에서 무용을 배운 고인은 6·25전쟁 이후 월남해 1953년 김백봉무용연구소 설립했다. 이후 1954년 김백봉무용발표회에서 부채춤과 화관무를 처음 선보였다. 부채춤은 부채를 펴고 접고 돌리는 행위가 무용의 중심이 되면서 신체운동을 유도해내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영화로 제작되고 국내외 무대에 공개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춤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다. 부채춤은 1992년 한국무용협회에서 명작무로 지정됐으며 2014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됐다. 화관무 또한 2011년 황해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됐다.

이후 고인은 1965년부터 우리학교 무용학부 교수로 재직해 1992년 정년퇴임을 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무용학부 제자들을 양성하며 우리학교 무용학부의 역사와 전통의 자리를 지켜왔다. 2014년에는 교내 교육 부문에 업적을 이룬 교직원으로서 '목련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고인은 우리학교 명예교수로 퇴직한 이후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명예교수, 김백봉무용단 예술총감독, 최승희춤연구회 이사장, 서울시무용단 단장을 하며 한국무용 양성에 힘썼다. 이어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로부터 20세기를 빛낸 예술인으로 선정됐으며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 명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외국인 동문 관리 '소통체계' 마련부터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미국 미주리대학을 졸업한 박종민(미디어학) 교수는 모교로부터 소식 하나를 받았다. 학교와 그 지역 소식을 담은 이메일이다. 박 교수가 그 대학을 졸업한 지는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 그럼에도 이 대학은 자국 학생도 아닌 외국인 동문에게 학교 소식을 전달하고 있었고, 박 교수는 그 메일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는 지난 2008년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학교 학부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은 3,206명으로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다. 전체 재학생 중에서 유학생 비율은 16%에 달한다.

우리학교는 외국인 동문 수 또한 상당하다. 하지만 외국인 동문과 적절한 소통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따

르는 상황이다. 외국인 동문에 대한 관심은 향후 ▲독자적인 유학생 동문회 설립 ▲기존 유학생 동문회 규모 확대 ▲학교 평판 관리 ▲동문 기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학생을 받기 시작할 당시 국제처에서 근무했던 학생지원센터 이진섭 차장은 "지금 유학생이 3천 명 수준이고, 유학생을 받은 지 10년이 됐으니 아마도 1만 명 이상 동문이 배출됐을 것"이라며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동문이 여러 방면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이기에 관계로 치면 수확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학생 대상 강의를 담당하는 홍승태(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졸업 후 한국과 관계된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동문이 어떻게든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좋

다"고 말했다.

외국인 동문과 소통체계가 잘 마련돼 있는 미국 사립대학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기부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로체스터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양진(한국어학) 교수는 "졸업 직후부터 2000년 초반까지 학교 소식이 우편으로 왔다"며 "대부분 장학금 기부를 독려하는 내용이었는데 모교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 10년간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사회 이후 모교에서 오는 우편물을 더 이상 받아보지 못했다. 바뀐 주소를 따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이 외국인 동문과 소통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졸업 이후 바뀌는 개인정보다.

대외협력처 이기라 처장은 "한국 학생도 졸업 후 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유학생의 경우 주소는 말할 것도 없고 전화번호, 메일 주소도 학교 메일이 아닌 다른 메

일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 김호인 과장 역시 "동문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동문 관리의 첫 시작은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과장은 "유학생들이 '졸업생의 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4학년 2학기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락처 업데이트 요청을 하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라 처장은 "작년 12월 국제처, 학생지원센터, 대외협력처 등 유관 부서 회의를 통해 유학생 동문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대외협력처 뉴스레터, 신문방송국, 커뮤니케이션센터 소식지뿐 아니라 소속 단과대학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